

AI 데일리 글로벌 마켓 브리핑

부담스러운 국채금리 상승..미국증시 약세

- 미국증시 주요지수 이틀째 약세 마감
- 미 국채 30년물 금리 5.31% 돌파, 19년래 최고
- 종전 MOU 종료, 트럼프 “연장 없어”..브렌트유 90달러 상회

Summary

미국증시 하락

현지시각 8월 17일 월요일 미국 증시는 다시 배럴당 90달러선으로 상승하는 국제유가와 19년만에 최고 수준까지 상승한 30년물 국채 금리 등에 부담을 느끼며 하락 마감.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0.51% 하락한 53,459.78에 거래를 마쳤고 S&P500 지수는 0.52% 하락한 7,745.06에 마감. 나스닥 지수는 0.32% 하락한 26,644.91에 거래를 마감했고 나스닥 100도 0.17% 하락. 중소형주 지수 러셀2천은 0.35% 하락했고 변동성 지수 VIX는 6.60% 상승.

(다우 -0.51%/ S&P500 -0.52%/ 나스닥 -0.32%/ 러셀2000 -0.35%)

미 국채 30년물 금리, 19년래 최고

미국의 최장기물, 30년 만기 국채 금리가 2007년 6월 이후 19년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음. 이날 30년 만기 국채 금리는 5.31%를 돌파, 글로벌 금융위기 초기였던 2007년 6월의 5.44%에 한 발 더 근접. 국채금리 상승은 여러 요인이 맞물린 결과인데 우선 지난 주 미 재무부가 실시했던 250억 달러 규모의 30년물 국채 신규 발행 입찰에서 낙찰 금리가 2001년 이후 최고를 기록하자 이후 매도세가 쏟아지며 금리 추가 상승으로 이어짐. 당시 국채 입찰에서 낙찰 금리가 높았던건 결국 투자자들이 미국 정부의 국가 부채 증가와 대규모 국채 발행,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등을 고려해 장기 국채에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고 있는데서 기인. 여기에 AI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한 기업들의 장기 회사채 발행이 늘어나며 장기 국채 수요가 줄어든 것도 장기 금리 상승 요인. 이는 정부가 국채를 대규모로 발행해 시중 자금을 빨아들이면서 기업의 자금 조달을 어렵게 만드는 이른바 ‘구축효과’와 정 반대 흐름으로, 빅테크들의 회사채 발행이 이어지며 장기 국채 투자자들이 빅테크 회사채로 쏠리는 양상이 나타남. 실제 AI 기업들의 회사채가 미 국채 대비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는데 따른 투자자 자금 이동도 적지 않다는 분석. 뱅크오브아메리카는 “AI 기업의 차입이 미 국채 장기물에 대한 수요를 잠재적으로 구축하고 있다”며 회사채 발행 급증 등이 올해 미 국채 10년물 금리를 약 0.3%p 끌어올렸다고 추정.

문제는 기업들의 AI 투자를 위한 회사채를 통한 자금 조달 시도와 막대한 재정적자를 감당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채권 시장에서의 자금 조달 시도가 한동안 이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점. 이는 결국 높아진 금리 수준이 한동안 지속될 수밖에 없음을 의미.

트럼프 “종전 양해각서 연장 가능성 없어”

이날은 미국과 이란이 맺었던 종전 양해각서(MOU)가 만료되는 시점. 앞서 미국과 이란은 이 종전 MOU를 기반으로 지난 6월 18일부터 2개월간 협상을 이어간다는 계획이었지만 양측의 교전이 재발하면서 이는 사실상 폐기된 MOU라는 평가를 받아왔음. 다만 공식적으로 만료되지는 않았기에 만료 시한에 도달해 MOU를 연장하고 협상에 박차를 가할 가능성에 대한 기대도 없지 않았지만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양해각서 연장 가능성에 대해 “없다”고 일축.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끝내기 위한 최종 합의에 가까워졌냐는 질문에 대해 그들은 합의를 원하고 있지만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합의를 하려고 하지 않고 있다며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고 재차 강조. 이와 함께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곳을 통제하고 있다”며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 영토로 선언한다는 아이디어가 마음에 든다.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앞서 폭스뉴스는 미국의 오만 폭격 가능성을 보도함. 오만은 이란과 호르무즈 해협을 사이에 둔 연안국으로 미국의 동맹. 폭스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오만에 대해 이란과의 협상 과정을 방해한다면 그들을 가차없이 폭격할 것이라고 욕설을 섞어 경고했다고 보도. 여차하면 동맹에 대한 폭격도 불사하겠다는 발언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궁지에 몰렸음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이 보도에 대해서는 “그들이 잘 처신했다고 보지 않지만 오만을 향한 인내심이 바닥난 것은 아니”라고 톤을 낮추는 발언을 함.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일련의 발언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시작했지만 끝낼 수는 없을 것 같은 전쟁을 해결하지 못하는 자신의 무능함에 대한 좌절감을 보인 것”이라 전하기도.

양측의 위협적인 수사만 오고갈 뿐 이렇다할 해결점은 도출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결국 공식적 MOU 시한 만료까지 맞이하자 사태 장기화에 대한 우려, 미국의 오만 폭격 발언 등 돌발적 상황에 대한 우려 등을 반영, 이날 국제유가는 2%대 상승. 브렌트유 기준으로 배럴당 90달러를 재차 상회, 국채 금리 상승세에 힘을 보탬.

특징종목

S&P500 내 섹터별로는 에너지(+0.87%) 섹터가 상승했을 뿐 나머지 섹터는 모두 하락. 특히 통신서비스(-1.47%), 필수 소비재(-1.46%), 금융(-1.04%), 재량 소비재(-1.03%) 섹터의 낙폭이 컸음.

메모리 중심 AI반도체 강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4.13%)를 비롯한 메모리 관련주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산 메모리 반도체 배제 기조에 힘입어 상승. 이날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미국 기업들이 중국산 메모리를 사용하는 것을 정부가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확인했으며 특히 앞서 중국 CXMT(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와 부품 공급을 논의해왔던 것으로 알려진 애플(-0.11%)에도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짐. 샌디스크(+8.88%), 웨스턴디지털

(+5.35%), 시게이트 테크놀로지(+2.19%). 마이크론 테크놀로지(+4.13%)에 대해서는 벅크오브아메리카가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1,550달러를 재확인했으며 샌디스크(+8.88%)에 대해서는 번스타인이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3,000달러를 유지.

AI 스타트업 엔트로픽의 2분기 잠정 매출이 1년 사이 약 14배 이상 급증했으며 전분기와 비교해도 약 3배 가량 늘어났다는 소식 역시 AI 인프라 투자 지속에 대한 기대를 높였고 이 또한 반도체주 전반의 투자심리 개선으로 이어짐. 특히 장비주 중심 강세가 두드러짐.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5.55%), 램 리서치(+3.45%), KLA(+1.00%), 테라다인(+5.81%).

엔비디아(-0.07%)는 오픈AI의 새로운 AI 데이터센터 건립을 위해 최대 1,05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증권 신고서를 통해 밝혔으며 인텔(+0.97%)은 립부 단 CEO가 인텔 주식을 주당 95달러에 10만 5,000주 이상 매입했다는 소식이 SEC 신고서를 통해 알려진 가운데 상승.

빅테크 대체로 약세

빅테크 기업들은 대체로 개별 이슈를 소화하며 약세.

메타 플랫폼스(-3.54%)는 현지시각 18일로 예정된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무부가 주도하는 29개주 법무부와 소송 개시를 하루 앞두고 하락. 이번 소송은 메타의 알고리즘이 아동 청소년들의 SNS 중독을 야기했는지 여부를 놓고 진행될 예정이며 앞서 메타는 뉴멕시코주 소송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패소한 바 있음. 이번 소송에서 패할 경우 배상금 규모는 약 200억~700억 달러에 이를 전망. 이번 소송에 패할 경우 천문학적 배상금을 물어야 함은 물론, 알고리즘을 수정해야 할 가능성도 있음. 이는 메타 수익 창출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결국 메타는 이번 소송에서 패할 경우 AI 인프라 투자 자원 마련에 단기, 장기적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으며 때문에 AI 경쟁에서 주도권을 잃게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임. 미국 법원의 판결은 향후 유럽연합을 비롯한 전 세계 규제 당국의 제재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구글 알파벳(-0.55%)은 사상 처음으로 호주달러 표시 회사채 발행을 검토한다는 블룸버그의 보도가 전해짐. 주관사 중 한 곳인 호주 뉴질랜드 은행이 성명을 통해 알파벳이 최장 20년물을 포함한 총 4개 만기 트랜치로 총 50억 호주달러 규모의 채권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 알파벳은 이달 초 미국 달러화 채권 시장에서 250억 달러 규모 회사채를 발행했으며 아울러 스위스프랑과 영국 파운드, 유로와 캐나다 달러, 일본 엔화 표시 채권도 발행한 바. 올해 상반기 알파벳의 총 채권 발행 규모는 500억달러를 돌파.

테슬라(-0.87%)는 이르면 8월 중 오스틴에서 로봇택시 '사이버캡' 운행을 시작할 준비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짐. 텍사스 공장에서 '사이버캡'의 생산도 시작했다는 소식.

아마존닷컴(-0.51%)에 대해 모건스탠리는 AI 인프라 수요를 기반으로 향후 8~10년래 AWS의 연매출이 1조 달러 규모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 이와 함께 투자 의견 '비중확대'와 목표주가 335달러를 유지.

이외 특징주

미 항공우주국(NASA)이 총 1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통해 우주선과 로켓 하드웨어 처리 작업을 수행할 업체로 올 포인츠 로지스틱스, 블루오리진, 그리고 파이어플라이 에어로스페이스(+1.91%)와 L3해리스 테크놀로지(-4.61%)를 선정. 다만 L3 해리스는 CEO의 갑작스러운 사임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최고 경영진 교체에 대한 불확실성이 투자심리를 압박해 큰 폭 하락.

우주 탐사 기업 인튜이티브 머신스(+7.21%)는 6억 달러 규모의 대형 위성 통신 프로젝트에 대한 고객사의 작업 착수 승인을 받았다고 밝힌 가운데 강세.

캐터필러(+2.93%)는 제조업 인력 양성을 위한 인력 개발 프로그램 적용을 확대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강세.

인사 관리 소프트웨어 업체 워크데이(-3.77%)는 도이체방크가 투자 의견을 기존 '매수'에서 '보유'로 하향한 가운데 하락. 이번 투자 의견 조정은 최근 한달여간 주가가 40% 이상 급등한 데 따른 것으로 앞서 지난주 사모펀드 실버레이크의 인수 협상 소식이 알려진 이후 주가는 10년만에 최대 일일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음. BTIG 역시 같은 이유로 워크데이의 투자 의견을 '매수'에서 '중립'으로 하향.

클라우드 신원 보안 업체 옥타(-2.84%)는 웰스파고가 투자 의견을 기존 '매도'에서 '매수'로 두 단계 끌어올렸지만 약세. 웰스파고는 기업의 정보보안 투자에서 신원 인증 분야가 핵심 지출 항목이 되고 있다며 옥타의 보안 솔루션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 포티넷(-2.60%), 크라우드스트라이크(-1.41%), 팰로 알토 네트워크스(-2.21%) 등 보안주 대부분이 약세.

국채 금리 상승에도 국제 금값의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이어지는 가운데 뉴몬트(+2.18%)가 강세를 보였고 이란을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유가가 상승하자 데번 에너지(+3.75%), EOG 리소시스(+2.48%), 옥시덴털 페트로리엄(+1.17%), 셰브론(+1.35%), 엑슨모빌(+0.85%) 등도 강세.

채권, 외환 및 상품 동향* 6시 10분, KST 기준

브렌트유 배럴당 90달러 재돌파

국제유가는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 상의 휴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에 호르무즈 해협에서 아랍에미리트 유조선이 억류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등 사태 장기화와 긴장 고조에 대한 우려가 확산돼 상승함.

뉴욕상업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2.55% 상승한 배럴당 84.50달러에 거래를 마쳤고 브렌트유 10월물도 2.90% 상승해 배럴당 90.87달러에 마감.

미 장기물 국채 상승에도 금가격은 이틀째 상승세를 유지, 온스당 4,470달러를 기록. 은값도 1.7% 상승, 온스당 66달러를 회복.

30년물 국채금리 2007년 이후 최고

미 국채 금리는 2거래일 연속 상승. 특히 장기물 상승폭이 컸으며 30년물 국채 금리는 5.31%를 넘겨 지난 2007년 6월 이후 19년만의 최고치를 경신함. 지난주 재무부의 30년물 국채 입찰에서 낙찰 금리가 예상보다 높았던 이후 장기물 매도가 이어지고 있으며 미 재정적자 확대에 따른 국채 발행 증가와 AI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한 테크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 증가 전망 등이 특히 장기물을 중심으로 한 수급 악화, 금리 상승(가격 하락)을 야기하는 것으로 풀이. 고유가와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도 역시 금리 상승 요인.

2년물 국채 금리는 0.6bp 상승한 4.1753%를 기록했고 10년물 미 국채 금리는 3.0bp 상승한 4.7219%를 기록. 장 중 5.31%를 돌파했던 30년물 미 국채 금리는 4.7bp 상승한 5.3060%를 기록.

시카고 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 시장은 오는 9월 FOMC에서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36% 중후반대 수준으로 반영했고, 10월까지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은 40% 후반대로 반영.

달러 약보합

달러 가치는 하락권에 머물렀으나 장 후반 낙폭은 축소하는 움직임. 최근 고용과 소비가 다소 위축되며 물가는 예상 범위 내에 머무는 것으로 해석되는 일련의 경제 지표들이 발표된 이후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경계가 완화되며 달러는 이날도 약세권에 출발. 다만 장 중 이란과 미국의 종전 MOU가 결국 공식적 만료 시한을 맞이한 가운데 연장 가능성도 없음을 확인하자 국제유가가 상승폭을 확대하고 국채 금리도 상승으로 가닥을 잡았으며 이에 달러 가치 역시 약세권에서 낙폭을 축소.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 인덱스(DXY)는 0.09% 하락, 99.575를 기록. 한편 달러-엔 환율은 장 중 159.46엔대까지 상승(엔화 추가 약세).

지난 금요일 서울 외환시장 주간 거래에서 1,418.30원에 종가를 형성한 달러-원 환율은 뉴욕 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1,416.50원에 최종 호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으며, 금융투자분석사의 감수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인공지능(AI)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습니다. AI가 생성한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정보 취득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신중한 판단과 추가적인 검증을 권장합니다. AI가 생성한 조사분석자료는 자체 검증과정을 거쳤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https://securities.miraeasset.com> 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